

I. 시작하는 말

바른 방향과 길잡이와 조언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떨쳐내고 내 방식대로 사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II. 중심 말씀

1.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천성이 부드럽지 않다는 말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대하라 명령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태도는 다툼과 허영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질서의 반대를 질서라 말하지 않으시고 화평이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 화평케 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오래 참는 기다림으로 부르심에 합당해야 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참는 것입니다. 곧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은 곧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와 본질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장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동안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3. 힘써 하나 됨을 지킴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하나가 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느냐, 하나가 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느냐 하는 가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 됨을 깨뜨리는 것은 곧 성령의 일을 훼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 힘씀이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복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맛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올 한 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찬323)

- 1)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 2)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